

# 베스트셀러도 추천도서일 수 있다

##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친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베스트셀러에 관해 우리는 좀 정리되지 않은 관점들을 갖고 있다. 우선 베스트셀러란 좋은 책이나 나쁜 책이나를 따지려 든다. 그것은 대중적인 반응을 얻은 책이므로 좋을 리가 없다는 관념적 선입견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보면 베스트셀러가 된 문학작품들은 무조건 논평에서 제외하는 습관까지 보이게 된다. 「홀로서기」나 「접시꽃 당신」 등이 그 좋은 예이고李文烈의 소설마저 논의의 회수로 보면 거의 없는 것보다 같다. 이유는 단지 이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물론 오류이다. 베스트셀러란 대중적 반응의 산물이지만 그 대중이 누구이며 그 대중들의 평균적 수준과 관심의 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들의 수준과 관심이 무개를 갖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베스트셀러이면서도 충분히 가치있는 문제의 책일 수 있고 또 추천되어야 할 책일 수도 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전혀 간과돼 있다. 왜냐하면 독자의 평균적 관심영역이 얼마쯤은 제한적이고 낮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비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만 해도 앨런 블룸의 「미국정신의 종말」이나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들이 우리에게서 빠르게 번역이 되었으나 그 판매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표현을 자제하기도 실은 어렵다. 이 책들은 그 원산지에서 참으로 대중적인 베스트셀러들이었기 때문이다.

### ‘팔린’ 것과 ‘읽힌’ 것의 차이

물론 우리에게서도 성공한 베스트셀러 번역본들이 있다. 예컨대 갈브레이드의 「불확실성의 시대」나 드러커의 「제3의 물결」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이 책들이 잘 팔린 것과 실제로 진지하게 읽혔다는 것과는 좀 구분하고 있다. 이 책들이 잘 읽혔다면 이와 연계되는 다른 책들도 역시 읽혀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같은 책은 원래 책으로 씌어진 것도 아니다. 더 대중적으로 영국의 BBC 라디오가 방송으로 했던 원고이다.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도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 책들은 전문적 수준의 목록에 속한다. 이런 내용들이 일상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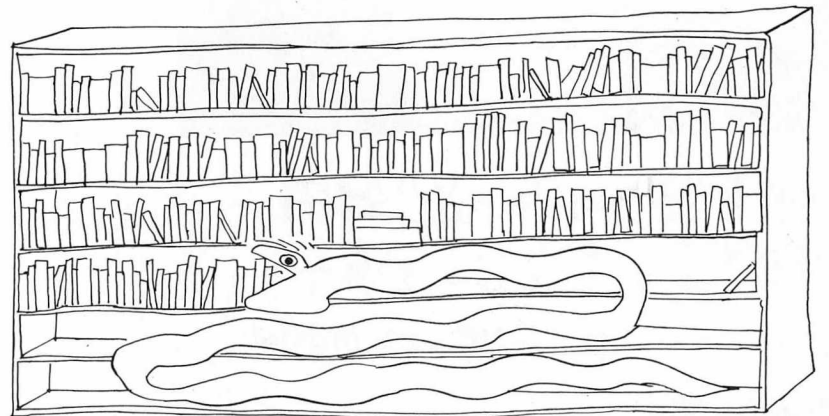
사며 상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일은 우리에게 지금 무리이다. 때문에 우리의 베스트셀러의 상당량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으로 있어도 괜찮은 것이긴 하다.

또 다른 베스트셀러에 대한 생각에 독자가 누구이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베스트셀러란 모든 계층 모든 연령층에 광범위한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건을 갖는다. 그래서 국민의 몇%에 해당하는 부수를 팔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의 독자들은 지금 계층별, 연령별로 제한돼 있다.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독자란 실은 20대 독자일 뿐이다. 여기에 30대 셀러라면 일부가 합세하면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느끼고 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아마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여성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요새 또 여성잡지 읽기에 바쁘다. 그러니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베스트셀러란 여성지에 자주 등장하는 작가들 몇명의 소설과 그리고 수필집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베스트셀러란 기실 진정한 베스트셀러들은 아니다. 그저 상대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말해야 옳다.

하지만 어느 나라의 베스트셀러라고 표지에 박아 간행되는 책들은 그 원산지에서 모든 계층과 연령층의 고른 호응을 받고 온 책들이다. 이 경우 부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감수성이 문제가 된다. 이 측면의 논의와 또는 분석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기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고전들만 추천된다. 그 고전들만 해도 하나씩을 면밀히 추적하면 그 대부분이 실은 그 시대의 화제작이었고 베스트셀러들이었다. 이 점을 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감각으로 보면 옛날 남의 나라 대중적 베스트셀러들은 존경하기에 이룰데없고 오늘 우리의 베스트셀러들은 목살해야 마땅하다는 모순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모순은 우리 문학작품에서도 드러난다. 30년대 이전의 한국문학들이 그 연대에 과연 예술적 진지함으로 고고했기 때문에 오늘에 추천되고 있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 무렵 그 작품들은 실은 너무나 통속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호의 나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베스트셀러 목록도 추천도서의 목록대상으로 유심히 보아야 하고, 그 베스트셀러 목록들은 실제로 가장 좋은 추천목록일 수 있다”



는 것이다.

###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친 책 백권

그 한 예로 나는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친 100권의 책」이라는 일본의 자료를 기록해두려 한다. 이 자료는 종전 후부터 오늘까지 일본의 베스트셀러 목록이었으며 동시에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이 그들의 사원에게 읽기를 권했던 목록이기도 하고, 이를 읽은 경영진과 사원들이 스스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의 일본경제계의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책의 목록이다.

그러나 이 1백권 중 60%는 일본인 저술가들의 책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저술이 아닌 공공단체의 일본저술만 포함하여 주로 번역서들의 목록만 옮겨보려고 한다. 왜 그렇게 하는냐는 나의 감정적 선택이다.

(▲표는 우리의 번역본도 있다는 표시임)

#### <1945~1954>

- ① 경제실상보고서(경제안정보본부 편)
- ▲② 菊花와 칼(루스 베네딕트)
- ③ 품질관리와 표본조사(W. 데밍)
- ④ 日本日記(M. 가인)
- ▲⑤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J.A. 슈페터)
- ▲⑥ 시련에 선 文明(아놀드 토인비)

#### <1955~1964>

- ⑦ 경제학교과서(소련과학경제학연구소)
- ⑧ 昭和 31년도 경제백서(경제기획청 편)
- ▲⑨ 현대의 경영(D. 드러커)

⑩ 과학적 관리법(F.W. 테일러)

▲⑪ 사람을 움직인다(D. 카네기)

⑫ 日本의 경영(J. 어벨글렌)

▲⑬ 경제성장의 체단계(로스토프)

⑭ 두려운 日本(N. 마클래)

⑮ 마케팅 혁신(T. 레버트)

(8종 생략)

<1965~1974>

⑯ 경제학(사무엘슨)

▲⑰ GM과 함께(A. 슬로안)

⑱ 경영전략과 조직(A. 첼렌더)

▲⑲ 맥루한 이론(맥루한)

▲⑳ 日本人과 유대인(이샤야 벤다산)

▲㉑ 초대국 日本의 도전(허만 칸)

▲㉒ 피터의 법칙(L.J. 피터)

⑳ 죽음은 초래한 결함차(랄프 네이더)

㉔ 성장의 한계(P. 미도우스)

㉕ 가날픈 꽃 日本(Z. 브레진스키)

▲㉖ 인간성장의 심리학(에이브라함 머슬로우)

㉗ 성숙사회(D. 가보)

(14종 생략)

<1975~1984>

▲㉘ 脱공업사회의 도래(다날엘 벨)

㉚ 인간부흥의 경제(E.F. 슈마하)

▲㉛ 제로베이스 매니지먼트(P. 피르)

▲㉜ 企業이란 무엇인가(일본경제신문사)

㉝ 불확실성의 시대(J.K. 갈브레이드)

㉞ Japan as No.1(E.F. 보겔)

▲㉟ 日本人(라이샤워)

▲㊱ 제3의 파도(앨빈 토플러)

▲㊲ 선택의 자유(M. 프리드먼)

**일반적으로 성공한 베스트셀러란**

**모든 계층 모든 연령층에**

**광범한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건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대 독자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다.**

**계층별, 연령별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베스트셀러는**

**기실 진정한 베스트셀러가 못된다.**

**그저 많이 팔린 책일 뿐이다.**

- ▲③⑧ 제로섬 사회(L. 도로우)
- ③⑨ 경쟁의 전략(M. 포터)
- ▲④⑩ 메가트랜드(J. 네이스버트)
- ▲④⑪ 엑셀런트 컴퍼니(T. 피터스)
- ▲④⑫ 상징적인 매니저(T.E. 딜)
- ▲④⑬ 회사의 수명(日經 비즈니스)
- (24종 생략)
- ④⑭ (1985~1989)
- ▲④⑮ 아이아코카(L. 아이아코카)
- ④⑯ 비즈니스맨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G.K. 와드)

- ④⑰ 승리자의 교만(D. 할버스탐)
- ▲④⑱ 강대국의 흥망(폴 케네디)
- 여기에 일인저술로서 우리에게도 알려진 목록을 추가하면,
- ④⑲ (1955~1964)
- ▲④⑳ 관찰력·사고력(松下幸之助)
- ④㉑ (1965~1974)
- ▲④㉒ 고개 위의 구름(可馬遼太郎)
- ▲④㉓ 低價哲學(中内切)
- ▲④㉔ 일본열도 개조론(田中角榮)
- ④㉕ (1975~1984)
- ▲④㉖ 복합오염(有去佐和子)
- ▲④㉗ 오일쇼크(堺屋太一)
- ④㉘ (1985~1989)
- ▲④㉙ 성장아시아 정체아시아(渡邊判夫)
- ▲④㉚ 신국부론(大前研一)
- ▲④㉛ 메이드 인 저팬(盛田昭夫) 등이 있다.

이 목록들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고 나는 생각 한다.

첫째 우리의 관심은 이 모든 목록들에 일본인의 독서관심과 함께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책들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비교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영향받음의 양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 아마도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명심하여 행동하는 일에 열심이지 않았기 때문 일 것이다.

둘째 번역서 목록에서 보듯이 그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심의 폭을 베스트셀러로서 표현해 냈다. 그러나 같은 목록의 번역에서 우리시장은 다음과 같은 책들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

-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 시련에 선 문명
- 현대의 경영
- 경제성장의 제단계
- 맥루헌 이론
- 피터의 법칙
- 인간성장의 심리학
- 탈공업사회의 도래
- 선택의 자유
- 제로섬 사회
- 메가트랜드
- 강대국의 흥망

**'읽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

이 책들이 팔린 것과 팔리지 않은 것의 차이가 바로 베스트셀러 읽기수준의 차이이다. 우리에게서도 팔린 책은 「제3의 파도」 「아이아코카」 뿐이다.

단순수치로 말한다면 우리도 32%의 목록은 수용하였으나 그중 6.3%만을 같은 수준으로 읽었다는 것이 된다.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서는 전혀 읽히지 않는 20세기의 저명한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저서들은 그 책들이 나오기 전에 원고가 미국의 젊은여성 잡지 「레드 북」이나 「맥콜」지에 게재되었다. 우리의 여성지에 이것을 게재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를 나는 가끔 생각한다. 아마 잡지를 안팔리게 해서 망하게 할 생각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읽기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어렵다'라는 표현을 듣게 된다. 그러나 이 '어렵다'는, 문장을 잘못쓰거나 문맥이 난잡할 때 말하는 것과, 그 내용의 기본개념이나 또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후자에 속하는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독자의 기초교육이 협소하고 피상적으로 잘못돼 있음을 뜻할 뿐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읽기에 있어서의 맹점이고 약점이다. 물론 교육부실의 책임이다. 베스트셀러 수준마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교육의 이 책임은 지극히 심각한 반성의 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개 · 어 · 있 · 는 · 사 · 람    개 · 어 · 있 · 는 · 나 · 라**

**지방자치시대의 선두이고자 합니다.**

문을 연지 이제 2년.  
아직 많은점에서 부족하고 애로도 많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저희 광복문고는 대형서점의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착실한 행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부산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기 시작하는 광복문고,  
더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복문고 임직원일동 —

- 1층 — 잡지·참고서
- 2층 — 문학·예술·아동  
휴게실 '푸른샘'
- 3층 — 전문서적매장·어학  
ART HALL '문화사랑'

광복문고 ART HALL 문화사랑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시민교양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전시회, 강연회, 작가와의 대화 등 여러분의 문화공간으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광복문고**  
BOOK PLAZA

1988년부터  
광복동  
유니백화점 바로옆

전화 : (代) 246-4081 FAX : 246-4157 도서납품(특판과) : 245-6676